



세월도 이완시키지 못하는,

섬세하고 정확한 맥락 속의 균형미

윤효 | 소설가

오래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답게 그녀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아, 이제야 그녀의 인상을 드러내는 하나의 단어가 떠오른다. 바로 균형이다. 그것은 그녀의 체질처럼 느껴진다.

인생과 문학 사이에서, 내면과 대인 관계 사이에서, 필사적으로 균형을 지키려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다.

신수정 씨를 처음 봤을 때 느낀 건 키가 유독 큰 미인이라는 것이었다. 첫소설집 해설 때문에 사당역 근처의 카페에서 만났을 때 키가 몇 센티미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수치를 듣자마자 음, 미스코리아 대회에 출전해도 되겠군, 하고 생각했던 걸 보면 170을 훌쩍 넘겼던 것 같다. 사실 문단의 여성들은 그다지 키가 크지 않다. 언제부터인가 문단에 미인들이 많아졌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들은 대개 평균 여성들의 신장을 살짝 밑도는 아담한 여자들이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맞는 걸까. 하긴, 이 현란한 영상의 시대에 무채색 활자를 붙들고 인생의 비의를 캐낸다고 씩씩하는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사실 키가 큰 사람들은 별로 지독해 보이질 않는다. 키 큰 사람치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는 옛말도 있지만 그들은 전투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체적을 조금 많이 차지하는 사람의 여유일까. 어쨌든 신수정 씨도 지독해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키가 큰 여자치곤 골격이 가늘고 얼굴이 작아서 섬약해 보였다. 즉 여자치고도 여성적인 분위기를 많이 풍기는 여자였던 것이다.

이 글을 청탁받은 후 난 최근에 신수정 씨를 가까이서 지켜본 적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꽤 고민했다. 하는 수 없이 다음 날 저녁에 만난 어떤 남자에게 신수정 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다. 그는 내가 그녀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단어들과 비슷한 형용사들을 늘어놨다. 예쁘고, 예의바르고, 겸손하고, 따뜻하고, 한마디로 안아주고 싶은 여자지!(참, 이성의 언어란 이토록 명쾌하다. 그들은 한 사람을 다각적으로 볼 때 떠올릴 만한 여러 단어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나 그녀의 글이 풍기는 분위기는 또 달랐다. 해설을 받은 후 난 꽤 많은 지면에서 그녀의 글들을 봤는데 별로 여성적이지 않았다. 감각을 전면에 내세우지도 않았고, 페미니스트들처럼 전투적이지도 않았고, 비판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짓눌려 있지도 않았다. 그녀의 언어들은 섬세하고 적확했지만 한결같이 어떤 맥락 속에 정교하게 박혀 있었다. 좀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그녀의 글들은 남성적으로 느껴졌다.

오래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적확하게 말하는 사람답게 그녀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아, 이제야 그녀의 인상을 드러내는 하나의 단어가 떠오른다. 바로 균형이다. 그것은 그녀의 체질처럼 느껴진다. 인생과 문학 사이에서, 내면과 대인 관계 사이에서, 필사적으로 균형을 지키려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다.(실제로 그녀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은 거의 비슷하다. 또 그녀는 단 한 번도 나쁜 소문의 주인공이 된 적도 없다. 난 고개를 가웃거린다.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

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완벽한 사람일까. 아니면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 한 가지, 무서운 사람이라는 건 안다. 이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지? 결국 신수정 씨가 지독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

사실 그녀의 균형이 수월해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문단의 모임에서 간헐적으로 본 그녀는 세월이 조금씩 느껴지긴 했지만 여전히 처녀처럼 예민해 보였다. 살이 찌지도 않았고, 능청스럽게 굴지도 못했다. 세월도 그녀를 이완시키진 못한 것이다. 그걸 보며 난 그녀는 안이 외양보다 세 배쯤 복잡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내면엔 새파란 불꽃 위에 걸쳐진 냄비가 있고, 그 안에선 온갖 감정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이다. 내용물들이 너무 치열하게 싸우다보니 오히려 부드러운만 걸러져서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전투의 후반전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진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다소 먼 곳에서 지켜본 그녀의 인상이다. 그러나 그 인상이 꼭 틀리란 법은 없다.

요즘 나는 글 쓰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십대와 삼십대를 각기 다른 열정들에 휩싸여 보내고 서른아홉이 된 지금에야 사물들을 거리를 두고 볼 수 있게 된 듯하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발짝 물러서서 본 그들은 문단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다. 그들은 가족 관계가 아닌 한 특별히 무언가에 집착하지도 않았고, 이익을 볼 만한 일이 아니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았고, 너무 바빠서 자기 인생을 들여다볼 틈도 없었다. 누군가 그렇듯 발 밑도 안보고 달리다 어느 순간 끝이 오면 억, 하고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질 걸, 하고 엄포를 쳐도 별 수 없다. 앞만 보고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생의 비의를 캐내는 일에 평생을 바쳐버리는 작가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가. 매사에 지나치게 눈치가 빠르고 또 지나치게 오래 아파하는, 신성하면서도 비천한 그들은 이 세계의 사제나 무당 같은 사람들인지도 모른다. 또 그들은 살아선 빠져나오기 힘든 지독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그들을 오래 지켜보는 비평가들은 또 무엇에 매혹된 사람들일까. 무슨 탓에 걸려들었을까. 궁금하다. ■

이 글을 쓴 윤효는 1965년 전남 광주에서 출생했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를 졸업했다. 1995년 <소설과 사상>에 단편 <새>를 발표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했고, 1996년 계간 <문학동네> 겨울호에 시를 발표하면서 시작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창작집 <허공의 신부>와 시집 <게임 테이블>을 펴냈다.